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⁸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⁹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⁰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¹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²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¹³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8-14)

거룩한 공포가 사람을 덮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소생을 알리신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사람의 자아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올 때, 거룩한 공포를 느끼는데, 그것은 가끔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전율이나 소름과 합쳐진다. 사람의 자아의 생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 사람이 후자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전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계시록 속뜻 56)

※ 위 56번 글은 아래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며, 관련 *Whitehead* 영역본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1:17)

And as a holy fear seized him, the Lord said, on his being resuscitated, "Fear not." Holy fea

눅2:8-14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r, which sometimes is joined with a sacred tremor of the interiors of the mind, and sometimes with horripilation, supervenes, when life enters from the Lord in place of one's own life. One's own life is to look from one's self to the Lord, but life from the Lord is to look from the Lord to the Lord and yet as if from himself. When man is in this latter life, he sees that he himself is not anything, but the Lord only. (AR.56)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거듭나는 동안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의미로 볼 때 주님의 탄생은 신앙인들의 믿음 가운데로 주님이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

는 믿음은 껍질만 있고 과육은 없는 열매와 같으며, 그러므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믿으면서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행하더라도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힘들어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느 때 오실까요? 8절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는 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지역은 본래 이웃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마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사는 모습이 이웃들과 함께 사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역은 교회를 뜻합니다.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

이 이웃을 뜻하면서 또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자는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선한 삶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목자는 성직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직자나 목회자가 아니고요, 신앙인들 중에 마음속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무슨 뜻입니까? 순진함, 또는 순수한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진리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진한 애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역의 목자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변하는 영적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루 중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수시로 변합니다. 늘 같지가 않은 것이죠. 낮에는 어떤 때입니까? 낮은 진리의 빛 안에 있

는 때입니다. 진리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진리로 늘 자신을 비취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낮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은 빛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취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밤입니다. 그래서 밤을 다른 말로는 시험의 기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선과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자신과 싸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말씀에서 천사는 진리를 뜻합니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다. 천사가 왜 진리를 뜻할까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천사는 진리를 뜻하며, 가장 높은 의미로는 진리 자체가신 주님을 뜻합니다.

※ 방금 천사를 가리켜 ‘그들은 ...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고 했는데요, 우리를 포함, 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람 따로, 천사 따로 창조하셨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베덴보리는 자기가 영계,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 보니 그렇지 않았다, 천국 모든 천사들도 그들이 천사가 되기 전엔 지상에서 사람이었다, 주님은 사람 이외에 무슨 다른 생명체를 별도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참 사람, 신적 인간(神的, *Divine Human*)이시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믿게 된 건 말씀을 겉 글자로만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영광이 비춘다”고 했는

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마치 밝은 영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빛과 함께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진리이신 주님이 선한 신앙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내면으로 흘러들어 올 때에는 누구나 마음이 크게 동요되고요, 심지어 전율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는 그 전율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해설 677번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시에 느끼는 공포는 지옥에서 오는 악과 거짓 때문에 내면의 영적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다. 즉 악과 거짓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로 인해 그가 사랑하는 선과 진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 위 내용은 아래 계시록 말씀에 대한 주석이며, 원본은 Ager 영역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11:13)

Again, “terror” signifies in the spiritual sense terror on account of evils and falsities that are from hell, for these terrify the spiritual man, because they are the opposites of the goods and truths, which the spiritual man loves and the loss of which he fears.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행여 더럽힐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이 모

두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이 겉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오실 때 행여 주님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¹⁰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터이니 더이상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었던 생명의 소생을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로 생명의 소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던 사

눅2:8-14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람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시록 속 뜻 56번 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사람 고유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올 때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

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자기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란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진리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진리는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업상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 말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말함과 함께 그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때 각자의 삶을 통해 진리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 감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

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실까? 주님이 완고한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실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확신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11절과 12절에서는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¹¹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²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에 오신, 강보에 싸인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증거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은 새로운 진리, 즉 선을 동반한 진리가 태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나는 곳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진리가 선이 없는 진리였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진리는 선을 동반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진리가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주님이세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강보는 순진무구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즉 선과 하나가 된 진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즉 다윗의 동네는 세상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사람의 내면 어디쯤에 있는지는 천국의 비밀 4592번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베냐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영적 사람과 천적 사람의 중간쯤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보통 자연적 사람이라고 하는 겉 사람이 있고요, 영적 사람이라고 불리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더 깊은 곳에 천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내면의 의식, 천적 의식과 영적 의식, 그리고 자연적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하면, 그래야 주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

가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의 삶의 평면으로 흘러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적 사람과 영적 사람, 자연적 사람이 서로 소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베들레헴은 영적 사람과 천적 사람의 중간에 있으며 그곳에 주님께서 선을 동반한 진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셔야 영적 사람과 천적 사람 사이에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사람과 자연적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적, 영적, 자연적 사람이 모두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 위에 나오는 ‘평면’이라는 표현은 ‘차원’, ‘현장’, ‘자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 위 4592번 글은 아래 창세기 말씀에 대한 주석이며, 관련 원본은 *Clowes* 영역본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
나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3
5:18)

All men whatever are born natural, with the power of becoming either celestial or spiritual; but the Lord alone was born spiritual celestial, and for this reason he was born at Bethlehem, where is the boundary of the land of Benjamin, for by “Bethlehem” is signified the spiritual of the celestial, and by Benjamin is represented the spiritual of the celestial. The reason why the Lord alone was born spiritual celestial is that the Divine was in him.

그러면 그 변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고질병처럼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지적인 기쁨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진리를 추구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

신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를 느낄 때 주님이 우리 내면에 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싸인 아기를 보았을 때 그것이 주님이 오신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나, 또 진리를 알게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니, 그러한 모든 시험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너무나 고마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위해 찬송 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자아에서 나온 것은 모두 악이며 오직 주님만 선택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송을 주

눅2:8-14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시험에 맞
 서 싸우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
 싸우는 그런 혹독한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
 은 그러한 시험들을 깨끗하게 버
 튼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
 람들에게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오
 십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비로소 하나
 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이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
 는 상태,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
 서 천사는

¹³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
 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
 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
 든 분들께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원본
 2016-09-04(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3-05(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